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10월 18일(화)에 배포되었습니다.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 토론회 개최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1년 10월 18일(화)

보도 날짜 : 2011년 10월 18일(화)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10월 21일(금) 오후 2시에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 개요>

- ☐ 행사명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 토론회
- ☐ 일시 :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14:00~16:00
- ☐ 장소 : 서울 YWCA 4층 대강당
- ☐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10월 21일(금) 오후 2시에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 최근 우리사회의 호화혼수, 과시적 결혼식 현상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론 더 나아가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관혼상제의 본래의 의미와 가치 회복하고 허례허식없는 건전한 관혼상제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감정책단을 대상으로 시대에 맞는 관혼상제에 대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4%가 ‘과시적인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관혼상제 중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혼례’로 응답하였다.

☐ 이에 이번 행사는 우리사회 혼례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본 토론회에서는 조희선 성균관대 생활과학부 교수가 “우리 혼례문화의 의미와 새로운 정착”을 주제로, 김인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가 “한국혼례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신산철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사무총장과 일반시민이 각각 사회지도층과 일반시민의 “새로운 혼례문화 사례발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에는 이해자 전 여성유도회장, 이광렬 그린웨딩 포럼 대표, 윤효식 여성가족부 과장, 이탁인 무료결혼식 추진운동본부장, 김양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혼례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최금숙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 혼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혼례문화를 간소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붙임 1.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 분	세 부 내 용
사회: 양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전략단장)	
14:00-14:10	인사말씀 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격 려 사 김태석(여성가족부 차관)
14:10-15:30	발제 1 우리 혼례문화의 의미와 새로운 정착 조희선 (성균관대 생활과학부 교수)
	발제 2 한국혼례산업의 현황과 과제 김인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발제 3 새로운 혼례문화 사례발표 사회지도층 사례 신산철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사무총장) 일반시민 사례
15:3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토 론 이해자 (전 여성유도회장) 이광렬 (그린웨딩 포럼 대표) 윤효식 (여성가족부 과장) 이탁인 (무료결혼식 추진운동본부장) 김양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6:00	폐 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
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